

합산컴퓨터<주>

玄 殷 晶 사장

‘정보입력시 키보드를 굳이 쳐야 하는가’ 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돼 정보입력의 수작업에 반기를 들고 컴퓨터가 문서를 그림으로 인식, 다시 글자로 전환시켜 입력정보를 데이터 파일로 만드는 「아르미」는 명실상부 ‘문자의 혁신’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문자 및 음성정보처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현은정사장.

데이터 입력에 새로운 장을 열 한글 문자인식의 상용화제품이 드디어 개발되었다. 오랜 연구기간동안 여러 난제를 극복한 채 탄생된 제품은 합산컴퓨터(대표 : 玄殷晶)의 「아르미」.

문서를 그림으로 인식

산재해 있는 불특정 다수 고객의 구미를 잘 파악해서인지 「아르미」는 94년

11월에 출시하자마자 1백50개(소프트웨어 2000copy수준)가 팔리는 등 판매에 호조를 보였는데 이 제품의 판매기록은 단 보름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아르미」의 개발주역인 합산컴퓨터의 연구진들은 과거 대기업이나 국책연구소에서 문자인식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 이들은 꿈과 사명감으로 매달린 4~5년의 연구기간이 오늘의 「아르미」를 있게 했다고 연구동기를 밝혔다.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적 발전 추세에 따라 다량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기록된 문자 데이터를 사람이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시켜야만 했다.

그나마 새로운 데이터일 경우는 그런대로 키보드를 쳐서 입력시킨다지만 5백페이지가 넘는 장편소설을 재편집할 경우 손으로 다시 모든 내용을 입력시킨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최근 컴퓨터 산업에 큰 발전이 있었지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거

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아르미」라는 문서인식소프트웨어는 “바로 누구나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입력의 수작업에 반기를 들고, 입력시키고자 하는 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인식, 그 그림을 컴퓨터가 다시 글자로 전환하여 입력 정보를 컴퓨터내의 데이터 파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아르미」의 개발주요인 엄철용(嚴哲龍)실장은 설명한다.

일반문서 인식을 98%

이때 「아르미」의 문자인식률은 매우 높아 일반 문서에서 평균 98%의 인식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철자 오류 기능이 있는 워드프로세서에서 오류정정시 99%의 인식률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아르미」는 연속 천매정도의 자동처리 뿐만 아니라 다른 윈도우 제품과 데이터 등의 호환이 가능해 명실상부한 ‘문자의 혁신’이 아닐 수 없다고 한다. 문자인식의 기수가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창업동기를 밝히는 현은정사장은 “개발기간이 4~5년이나 걸려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없이 「아르미」와 같이 고객의 구미를 당기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고 전하며 소프트웨어만의 매력에 여기에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OCR(Optical Character Reader : 광학문자인식)은 스캐너로부터 그림을 인식받아서 코드(code)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로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현사장의 전망이다.

“정보 입력시 키보드를 굳이 쳐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됐지만 문자인식소프트웨어는 점차적으로 오퍼레이터의 인력낭비를 막을뿐 아니라 스캐너 산업 및 광과일시스템 등 타산업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돼 여러 분야에서 신종업종이 탄생할 것이라고 현사장은 내다봤다.

한편 문자인식 시스템 관계자들은 「아르미」가 국내최초 문자인식제품은 아니나 문서인식률이나 일괄자동(다량문서)처리 등에서 기능이 월등하다는 호평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 현사장은 “문서제품에서 2위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합산에서도 1년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지만 보다 완벽한 제품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라고 소프트웨어분야야말로 제1위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처리속도 3배로 늘려

앞으로 1년동안에는 아르미 P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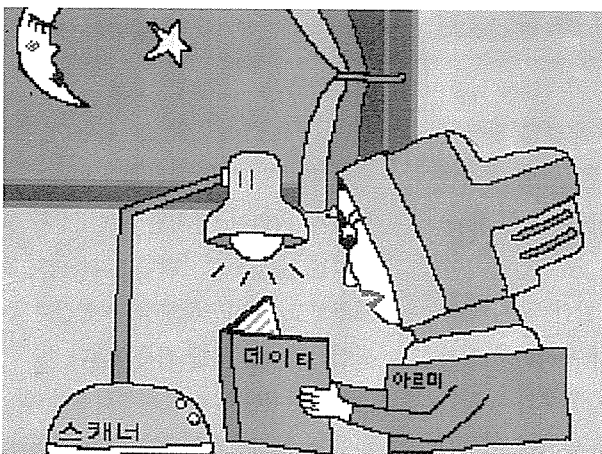
2.0(한자기능 : 현재 한자에선 에러가 발생하여 워드기능에서 오자를 잡아내고 있다)까지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고, 95년 상반기까지 지금의 처리속도보다 3배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LAN 기능, 철자오류, 한자인식 등 계속해서 실용성있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 한다.

그래서 일반문서, 자료관리는 물론 전자출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입력해야 할 양이 많을수록 기대효과는 더욱 커져 일대 ‘사무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현사장은 전망했다.

오로지 소프트웨어를 대중화시킬 목적으로 탄생한 (주)하이아트에 판매를 대행시키고 소프트웨어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합산컴퓨터(주)는 문자입력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실현시킨 회사이다.

문자부분의 종합적인 시스템 구현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정보 관리 전문업체로 발돋움해 나가는 것이 현사장이자 모든 연구원들의 ‘꿈’이라는 이들은 앞으로 문자정보처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아울러 문자정보처리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음성정보처리 분야에도 도전함으로써 멀티미디어시대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합산컴퓨터의 당당한 포부이다.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자가 입력되는 고품질문서인식시스템 '아르미'의 입력화면

〈아르미의 시스템 사양〉

1. 사용기능 컴퓨터 기종 : 486/DX 이상의 PC, 8MB메모리, SVGA
2. 작업환경 : MS - WINDOWS내에서 실행
3. 스캐너 : TWAIN 드라이버 지원 스캐너는 「아르미」내에서 자체구동할 수 있음.
4. 설치시 하드 디스크 필요용량 : 1.1M
5. 복제방지방법 : 프로텍션 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